# 설동일(전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[1])
# 1차 구술

1. **구술자**: 설동일
2. **면담자**: 박보영
3. **촬영자**: 권용협
4. **구술일자**: 2012년 7월 6일
5. **구술장소**: 부산 부산진구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사무실
6. **구술분량**: 04분 36초 / 일부 공개
7. **주요내용**: 1995년 부산시장 선거과정과 일화

면담자 : 부산시장 선거[2]가 있었거든요. 시장 선거 출마하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 좀 급작스런 감도 있었는데요,

구술자 : 필요했으니까 한 거예요. 일단 부산에서는 지금 김영삼 여당, 삼(3)당 합당한 거대여당과 실제는 (야당은) 이제 민주당밖에 없는데 제 이(2)도시에서 시장 선거에 각을 못 세운다는 거는 정말 좀 시민사회에 많은 절망과 특히 민주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. 그 자리에서 주신 거예요. 제가 볼 때.

음 그분 참 (선거과정에서) 굉장히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분을 하시고 또 거기에 철저하시고자 한 부분이 많고 꼼수를 잘 안 쓸라 하셨어요. 뭐 당시에 소위 시민운동에 좀 발을 걸쳤다가 인제 시장후보로 나온다는 분도 있었고, 전직 시장 출신도 있었고. 이런 분들한테 '나 좀 도와 달라'라고 협상하는 과정, 이런 과정을 보시더라도 '내가 필요하니 도와 달라'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, 함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따져 보신 것 같구요.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안 하신 거고.

그 다음에 누구보다 한 표가 아쉬운데도 예를 들면, 그 당시에 송기인 신부님이 뭔가 성당의 축일인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가 있는데 갑자기 오시라 하더라구요. 그것도 후보님 모시고. 그래서 후보님 모시고 가니까, 신부님이 인자 오시라 하니까 선거 바쁜 시기에라도 같이 갔죠.

---

1) 2006년~2009년 재직
2)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말함.

같이 갔는데 어, 가서는 신부님한테 인사만 꾸뻑하고 돌아가실라 하더라고요. 신부님 오라할 때도 여(여기) 유권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좀 소개도, 악수도 하고 이라고자 불렀는데. 하, 떡 가더마는 인사만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. '아니, 변호사님 그 다 푠데 악수나 좀 하고 가시죠' 하니까 '아, 남 잔치에 와서 그라면 안 돼'하고 돌아가시고. 언론하고 각세운 거는 역시 시장선거 때 똑같은 거구요. 그라고 시장에 나가거나 행사성 이벤트를 굉장히 그때도 싫어하셨어요. 어쨌든 표를 구걸하는 것까진 생각 안하셨는데 유권자를 굉장히 주체로 바라보시고자 한 거죠. 내(나)를 위해서 찍어라, 그것도 인제 이런 설득이나 연설, 토론을 통해서가 아니고 좀 치장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시장에 나와 가지고 막 악수를 한다던가 이런 걸 좀 그때도 조금 싫어하셨던 것 같다, 그런 측면들이였죠. 원칙에 좀 충실하고자 하고 본인이 좀 하고자 하는 의미를 항상 엄밀히 규정하고 거기에 좀 철저하고자 하신 게 아니냐,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.

시장 선거는 거의 뭐 당 조직이라는 거는 거의 뭐, 사실은 인제 그 동구에서 출마를 하셨기도 하고 또 현역 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당 조직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제 자원봉사에 의존했어요. 그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문화단체들이 전 지역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자, 선거를. 물결유세단. 이래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오는 사람들 흥겹게 하는 그래서 간혹 이제 또 연설도 한마디씩 본인이 하시든, 또 연설자를 하나 뽑아서 하시든 그래서 아주 신나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. 대부분 자원봉사자고 자기 경비로 뭐 다 그냥 밥 먹고 했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지리산 등반을 이제 정확히 몇 명 한 서른 명 가까이, 한 스무 명 이상 됐는데 끝나고 하여튼 그 운동화, 등산화 시가 한 사(4)만원 짜린가 그거 하나 받았던 기억이 나고.(웃음)

**■ 구술자 주요이력**

1956. 부산 출생

1975.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입학

1981. 부림사건으로 구속

2002. 부산민주공원 관장

2006.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

2010. - 노무현재단부산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(2012년 현재)

2011. 민주통합당 부산시당위원장

혁신과 통합 부산대표(2012년 현재)

| |
|---|
| 1981년 부림사건 피해자로 노무현 변호사를 처음 만났다. 노 대통령이 1995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 기획단장을 맡았다. 2002년 부산민주공원 관장, 2006년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했다. 2012년 현재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. |